

# 장로교 집사

핵심 가이드

얼 존슨 지음  
*Earl S. Johnson, Jr.*

김지은 옮김

© 2017 웨스터민스터 존 낱스 출판사

영어판 출간 *The Presbyterian Deacon: An Essential Guide* 장로교 집사:  
핵심 가이드 2002, 2014 일 존슨 Earl S. Johnson, Jr 지음

영어판 출간  
웨스터민스터 존 낱스 출판사 출판  
루이빌, 켄터키

22 23 24 25 26 27 28 29 30—10 9 8 7 6 5 4 3 2

관련 소유.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승인 없이  
복제, 녹음하거나 정보 보관, 검색 기능을 통해 재생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  
1396이나 [www.wjkbooks.com](http://www.wjkbooks.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용은 The New ed Standard Version에서 했으며,  
저작권 소유 1989 미국 기독교 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기독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북 디자인: 샤론 아담스 Sharon Adams  
표지 디자인: 엘리슨 테일러 Allison Taylor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is on file  
at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ISBN-13: 978-0-664-26809-1

웨스터민스터 존 낱스 출판사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도서는 기업, 단  
체나 이익집단의 대량구매시 특별 수량 할인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pecialSales@wjkbooks.com](mailto:SpecialSales@wjkbooks.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 2판 머리말	vii
서론	1
1. 성서적 배경	5
2. 개혁 전통과 장로교회의 집사	13
3. 집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가?	23
4. 안수를 위한 질문	43
5. 신앙고백서	51
6. 21세기와 그 이후를 위한 창조적인 집사 사역으로 부르심	61
부록: 집사를 공인하는 기도	73
용어사전	79

## 제 2관 머리말

제네바 출판사 편집자가 2000년 미국 장로교 집사의 사역에 대한 서문을 써 달라고 처음 나에게 부탁한 이후, 교회 전체와 특히 교단 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일례로 2011년 여름, 총회는 대다수 노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후 개정된 안수직(“직제사역”이라 불리는)의 표준을 만든 새 규례서를 승인했다. “목사” 호칭이 “교역장로”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교회는 우리 헌법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새로운 개방성”(F-1.0404)과 “장로교의 제도적 형태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의 활동에 신실성과 유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형태가 주는 가능성과 위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방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적응력을 부여하도록 결정했

다.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관한 더 상세한 탐구를 원하는 분들은 나의 저서 「섬김을 위해 선택된 자: 교회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 제 2판 (루이빌, 켄터키: 제네바 출판사, 2012) 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집사의 사역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간략해졌고 (G-2.02), 이전 지침 중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그 중 일부는 교역장로(목사), 사역장로(장로)와 집사들 모두가 해야 할 사역들에 흡수되었다 (일례로 G-2.04 참조).

이러한 축소는 여러 면에서 우리 교단 집사의 미래 사역을 위해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로교인은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와 문화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고 있다. 많은 교회가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장로교 제도와 옛날 예배 스타일을 앞선 세대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모든 교회는 찾고 있다. 집사의 직무 내용이 축소됐다는 사실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우리의 강점 뿐만 아니라 약점도 평가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유형의 집사 사역과 목회 사역을 시도하고, 폐기하고, 강화하기 위해 창의력, 통찰력, 그리고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께 더욱더 의존하게 한다.

집사의 사역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회 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73년에 시작되어 수년간의 토론과 논쟁 끝에 2011년 교회는

게이와 레즈비언을 집사, 사역장로(장로), 그리고 교역장로(목사)직에 안수를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든 장로교인은 이제 사역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있으므로 한때 자격이 상실됐던 많은 남녀도 이제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일부 교회들은 보게 된다. 그들의 존재가 지역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풍성하게 하기를 희망한다.

집사를 위한 두 번째 지침서를 쓰는 것은 환영할 만한 도전이다. 우리 모두가 집사 사역의 성경적 역사적 뿌리를 깊이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새롭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추구하는 바를 신중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에 한 발씩 딛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이 새로운 모험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자. 마지막 장에서는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다.

초판 앞부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는 여러 면에서 교회의 첫째 되는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많은 교인들이 맡는 첫 번째 직제사역
- 더 확대된 교회의 사역에 대한 첫 번째 주요한 헌신
- 회중의 보살핌을 담당한 첫 번째 조직적인 경험 등이다.

이 책은 가능한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썼다. 새로운 집사는 한두번 읽으면서 책임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앞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지 맞볼 수 있다. 이미 집사인 성도들 또한 새롭고 보다 유연한 교회 정치제도에 기초한 집사 사역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한다.

얼 존슨  
 뉴욕 존스타운에서  
 2012년 9월

## 제 2판 업데이트

이 개정판은 우리 헌법, 특별히 예배 모범과 신앙 고백서에 변경된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특별히, 예배 모범은 다시 쓰여졌고, 벨하 신앙 고백은 2016년에 추가되었다. 게다가, “교역 장로”라는 호칭은 다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변경되었다.

얼 존슨  
 2020년 4월

## 서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미국장로교 PC(USA)의 집사 직분을 맡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규례서에 기록된대로 “성경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은 자, 외로운 자, 압제 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 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영적 인품, 정직한 평판, 모범적인 삶, 형제 자매애, 진심어린 연민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역에 선출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집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곤경에 빠진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집사는 친지의 죽음으로 아파하는



교우에게, 임원 중인 이웃에게, 일자리를 잃은 친구에게,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경이롭지만 갑작스럽고 도전적인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새내기 부모들에게, 환영의 말을 필요로 하는 새 교인들에게, 질병이나 장애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외롭고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억압 받고 살만한 거처가 없거나 먹거리가 충분치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 재해 또는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한다.

분명한 것은 집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동정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장로교인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도록 보냄 받았다. 그러나 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와 공동체에 가져오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집사는 목회자를 목회적 돌봄에서 지원하고, 당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소도시 또는 도시가 정의로워지도록 사역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베드로전서 1:22)는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5:12)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 세상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규례서는 집사들이 돌봄과 관심의 단순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바빠 돌아가고 불안에 사로잡힌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미국장로교 헌법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F-1.0301) 전체교회 특히 집사들에게 요청한다. 연민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집사들은 신약에서 아가페로 묘사된 사랑(마태복음 24:12, 누가복음 11:42, 요한복음 13:35, 15:9, 로마서 5:5, 8:39),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에서 나타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은 상대방을 우선하고 위에 두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마가복음 10:45). 모든 것을 재거나 묻지 않고 그 사랑 자체를 온전히 제공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 중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다. 오래 참고, 열려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소망을 품으며, 견뎌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것이 영원한 것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7-12).

이 책은 사랑의 사역 자체이다. 뉴욕 주의 네 교회에서 집사들과 함께 사역한 것은 나에게 특권이였다. 나는 그들에게서 열린 마음, 굿은 일을 마다 않는 자세, 높은 소명의식과 따뜻하고 친절함의 미소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나에게 준 모든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웨스트 찰튼, 플래츠버그, 피츠포드와 존스타운의 집사님들께 이 책을 바친다.

이러한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중요한 사역을 보며 내가 느꼈던 열정이, 집사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교회에서 일하고 있거나 집사로 부름받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집사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한다. 세상이 간

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행동을 더 필요로 하지 덜 필요로 하지 않는 지금, 집사 사역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섬김, 돌봄, 그리고 정의의 사역으로 분명 확실히 우리를 부르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심령을 열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르심에 응답하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뿌리 박혀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하시는” (에베소서 3:17-21) 능력이 얼마나 많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능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원한다.

## 1장

# 성서적 배경

사도와 장로직이 자리잡은 다음, 집사의 사역은 신약 교회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직제사역 중 하나였다.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도인은 교회 성장에 있어 부러워할 만한 문제에 직면했다. 제자는 수적으로 증가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 (아람어나 히브리어 배경에서 온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헬라어를 구사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분배하기 위해 조직된 사역에서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예수의 열두 제자 (가룟 유다가 맛디아로 대체된 때까지, 사도행전 1:23-26 참조)는 교회의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서 “식사를 시중드는” 새로운 7명을 선출해 다른 사람들은 계속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첫 번째 집사들 (디아코노이 *diakonoi*) 모두가 헬라어 이름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1세기에도 이미 분명한 사실이었다. 불평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된다! 초대 집사 그룹 (스데반)의 지도자가 가르침과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교회가 평범한 일보다는 그 임무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대 교회가 교회 제직 중 가장 중요한 그룹 중 하나에 평범하고 대단치 않은 이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새로운 직책이 중요하고 권위있게 느껴지는 호칭을 당연히 원한다. 예를 들면 사회 봉사 제공자나 돌봄 전문 사역자 같은 호칭 말이다. 그러나 교회는 “문자적으로” 집이나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어찌면 “노예”와 비슷할 수도 있는 “디아코노스”(diakonos)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그들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심지어 여행자가 발을 씻겨주기도 요구했기 때문에 가장 부러워할 만한 직무는 결코 아니었다.

왜 초기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위해 그렇게 겸손한 칭호를 선택했을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으뜸이 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범에서 배운 것이다 (마가복음 9:35).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상처 받으심으로 높이 들려 올리신 (이사야 52:13)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의 모범을 따랐다 (이사야 53장). 예수께서 아는 이 종은 아침꾼도, 출세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의 죄를

젊어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그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공의를 열방에 가져온다 (이사야 42:1). 주님의 종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봉사를 명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10-11).

복음서는 섬김을 통해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말해준다.

-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0:43, 저자 의역).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26, 저자 의역).
-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3:16; 마태복음 10:24, 누가복음 6:40 참조).

신약성서에서 집사의 직제사역 (디아코노이 *diaconoi*)에 대해 가장 초기에 쓰여진 참고 문헌은 바울이 감독들 (에피스코포이 *episkopoi*)과 함께 그들에게 인사하는 빌립보서 1: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기 저자 (디모데전서 3:8-13)는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의 첫 번째 목록을 제공한다. 이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교회에 의해 시험 받음
- 믿음에 담대하며 믿음의 신비를 고수함
- 자신의 가정을 잘 관리함 (감독의 자격 참조, 3:4-5)
-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헌신되고 신중함
- 정직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음
-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중독성 성향이 없음 (이상 모든 자격에 관한 상세한 토론은 3장 참조)

대신에, 집사들은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 자신과 의미있는 봉사에 대한 좋은 평판
-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특권 (G-3.0102 참조)

신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봉사(디아코니아 *diakonia*)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 바울은 스테반이 첫 번째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넘어서 그의 온 집안이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했다”(고린도전서 16:15)고 지적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요한계시록 2:19) 같은 몇 가지 영적 특성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바울이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2:4-6 구절에 기록한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서로 다른 은사(카리스마타 *charismata*), 봉사(디아코니온 *diakonion*), 행동 항목(에네르게마톤 *energeaton*)은 모두 “공익을 위해” 교회에 에너지와 열정과 힘을 공급한다. 집사와 다른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신앙을 해석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하거나, 영적 분별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한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부름 받았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신다(고린도전서 12:27-31에 있는 목록 참조).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려는 동일한 열망이다. 섬김은 단지 집사의 특성일 뿐 아니라 사도들(로마서 11:13, 고린도후서 4:1, 6:3-4, 사도행전 1:17, 25)과 전도자와 선교사(디모데후서 4:5), 심지어 천사들(히브리서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



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의 특성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4:17에서 아킵보 한 사람에게 준 “주 안에서 받은 직분(문자적으로는 섬김)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는 훈계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힘에 겨운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영광이 있는 영의” “직분”(NRSV,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diaconia*), “영광이 넘치는 칭의(의)의 직분”(고린도후서 3:7-11)이며, 용서와 화해의 사역(고린도후서 5:18-19), 성도들의 관대한 사역이다(고린도후서 9:1, 12-13). 무엇보다 사랑의 봉사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무와 은사 중 제일이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13:13). 집사는 여러 교회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들과 사역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연민을 가지고 소명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말씀 전달이면 설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섬김(디아코니아 *diakonia*)을 통한 사역(디아코니안 *diakonian*)으로, 완전한 즐거움과 사랑으로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롬 12:6-8).

## 학습과 되새김을 위한 질문

1. 사도행전 6:1-7을 읽으십시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집사들에게서 기대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절)? 여러분의 집사회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보입니까?

2. 디모데전서 3:8-13에서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여덟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까? 당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들 중 일부를 당신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3.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 . .” 라는 베드로전서 4:11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집사의 사역에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회중의 사역이 약한 교회에서 당신은 집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